



5면

미국 출장 성과, 전주시정 접목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음 12월 15일) 제3432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도내 도내 대·중소기업 신·증설 투자 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영철 LS엠트론 특수사업부부장, 홍정덕 세아제강 공장장, 이원민 지엘켄 대표 등 참석자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도내 기업들 추가 투자 잇따라

전북자치도, LS엠트론·세아제강·지엘켄 등 3개 기업과 협약 체결
총 1061억원 투자 107개 일자리 창출... 전북경제 활성화 '마중물'

도내 대기업인 LS엠트론을 비롯해 세아제강, 지엘켄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영철 LS엠트론 특수사업부부장, 홍정덕 세아제강 공장장, 이원민 지엘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LS엠트론은 테크노2밸리산단에 계도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세아제강과 지엘켄은 군산 국가산단 내에 있는 여유부지에 각각 강관과 천연 합성물 제조를 위한 공장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3개사가 총 1,061억 원을 투자해 107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이미 도내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3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대기업이다. 민선 8기 들어 대기업이 포함된 다수의 도내 기업들이 성장 속도에 맞춰 추가 투자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LS엠트론은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방위산업'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완주공장에서 방산분야만 분리해 계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아제강은 지난 2018년 설립된 매출액 1조원의 대기업으로 2009년 군산공장을 최초 준공했으며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강관을 국내 주요 건설사에 납품하고 있다.

지엘켄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2022년부터 군산공장을 가동 중으로 이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천연화합물을 생산 중이다.

특히, 최근 이차전지 기업이 새만금에 대거 투자됨에 따라 지엘켄의 군산 공장 증설이 필요하게 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민선8기 1년반동안 11조원이 넘는 기업유치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유치는 항상 초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내에 소재한 항토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4년 군산시 첫 투자협약에 오랜기간 군산시와 함께해 온 철강대표 기업인 세아제강과 이차전지용 바인더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한 지엘켄이 군산시에 재투자 해주셔서 흐뭇하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LS엠트론의 완주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며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기업유치이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으로 투자기업과 완주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도의 기업의 투자는 물론 도내 기업이 더 성장해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산업 및 기업동향을 공유하며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대설특보 해제에 중대본 1단계 해제... 위기경보 하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에 발표했던 대설특보가 일부 도서와 산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됨에 따라 24일 오후 4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해제했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한 때 항공기 364편이 결항되고 전국 곳곳에서 수도계량기 164건이 동파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부로 대설·한파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발령했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도민과 함께 새 역사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첫 임시회서 출범 현수막 퍼포먼스
국주영은 의장 "변화에 대한 도민 체감 높이도록 역량 집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4일 오후 첫 임시회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관련사진 3면)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도민과 함께 쓰는 새 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다짐의 구호를 외쳤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제부터가 시작"

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담긴 수많은 기대와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도의회는 고도의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밝힌 뒤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변화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특례 발굴과 특별법 반영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새 관광거점 문 열어

전주종합관광안내소 현판식... 29일 본격 운영

전주한옥마을에 체류형 전주 관광을 이끌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관광거점이 들어섰다.

전주시는 24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의원,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종합관광안내소'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현판 제막 의식,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종합관광안내소는 기린대로와 태조로가 만나는 한옥마을 초입(완산구 풍남동3가 19-5)에 국비 32억4,000만원 등 총 64억 8,0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461㎡에 지하 1층~지상1층 규모로 지어졌다.

안내소 지하 1층에는 포토존과 파노라마월, 한옥마을 디오라마, 열린화장실이 조성됐으며, 지상 1층은 관광안내소와 무인관광터미널, 누마루 등을 갖췄다.

전주종합관광안내소는 앞으로 안내소 분야의 기능에 충실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음식·관광·교통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내소 내부에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아날로그 모형을 활용해 한옥마을의 현재 모습과



24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주종합관광안내소' 현판식이 열린 가운데, 우범기 시장 일행이 안내소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역사가 흥미롭게 구현됐다.

시는 이날 현판식에 이어 오는 29일부터 전주종합관광안내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1층 관광안내소와 포토존, 파노라마월은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나머지 무인관광터미널과 누마루, 열린화장실, 스마트라커 등은 1년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의 얼굴이 될 전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을 준비해왔다. /김재훈 기자

로컬푸드 LOCALFOOD
www.iksanfood.co.kr

어양점 (익산시 어양동 481-1)
모현점 (익산시 선화로1길 57-6)

익산물